

## 저PBR株 공개 "중복 상장·주가 누르기 막아야" 코스닥 2부리그 도입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전경(한국석유공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중동에서 발발한) 전쟁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런 위기 때야말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잘해야 한다. 그게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작년에 주가가 2,500선에 있다가 조정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불안한 느낌이 있었다."

모든 일에 양면이 있듯 지금도 (주가를) 다지는 계기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동안 같은 주식도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할인되는 일이 수십년 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을 ▲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와 경영권 남용 문제 ▲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 산업 정책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이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의 경우 "휴전선에서 말 폭탄이 오기다 총격까지 발생하니 저 나라 또 전쟁 나는 것 아닐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언

급했다.

"사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많이 과장돼 있다. 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하며 불안감을 증폭시킨 면이 있다"며 "우리가 하기에 따라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닌 코리아 프리미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주가조작 폐기방안'이라는 애길 자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주가조작을 하면 그 조작에 동원된 현금까지 몰수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단속 인력도 늘리고 있어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 등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 앞으로 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정말 중요한 요소다."

제가 각별히 관심을 가진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집중 문제도 (자본시장 활성화)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합리

화부위원장에 연락이 왔는데, '왜 주식을 오늘 팔면 돈을 모레 주느냐는 얘기를 하더라'며 "이 사안도 오늘 의제 중 하나로 검토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이 저평가(저PBR) 기업의 리스크를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은 2개 리그 구조로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모회사가 상장된 상태에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 안정화 및 체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반기마다 리스트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지배력 확대 등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가 낮더라도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도록 시장 압박을 강화하는 취지다.

PBR이 1 미만일 경우 기업의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로, 자산 대비 시장 평가가 과도하게 낮은 신호로 해석된다.

▶ **이재명 대통령 "위기 때야말로 자본시장 개혁...새로운 출발 준비"**

▶ **지정학적 리스크 많이 과장...정치권이 불필요하게 악용도"**

▶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방지**

▶ **코스닥 프리미엄·스탠다드 시장 간 승강제...연계 ETF 개발**

PBR이 동일업종 내 2개 반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표되고, 종목명에 '저PBR'이라는 태그를 붙일 예정이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수행한 경우 공표 및 태그 표출을 일정 기간 면제해 기업의 자발적인 개선을 끌어낸다.

금융당국은 자산가치 재평가 공시도 도입한다. 그동안 일부 기업이 자산가치 상승에도 원가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우선 토지 자산에 대해 공시지가를 활용해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간 차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향후 다른 자산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경영 감시기능을 유도하는 슈어스(ShareSight)를 내실화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충실한 코드 이행 여부에 제3차 점검체계를 신설해 이행·미이행 기관 명단을 공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택하기로 했다.

유망 자회사의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가 우려돼 왔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나,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을

잇따라 상장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돼왔다.

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또는 기 상장)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의 유형으로 판단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예정이다.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은 '성숙한 혁신 기업(프리미엄 시장)'과 '성장 중인 기업(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재편한다.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봉 기자

## 정부, 원유 위기경보 2단계 "주의로 격상" 비축유 방출 초입기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조짐에 오늘 오후 3시 기해 2단계 발령

미국·이란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석유 수급 위기가 가시화되자 정부가 18일 오후 3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중동 정세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가 규정하는 '주의' 단계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한 이유는 현 상황이 단순히 위기가 예상

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실제로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는 '주의' 단계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기존 '관심' 단계가 산유국 등의 정세 불안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수송로 차질이 '우려'되는 수준이었다면 이날 발령된 '주의' 단계는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르면 중동 주요 산유국의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인해 부분적인 생산 차질과 수출 제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석유 수송경로의 불안정이 확산하고 있다. 아울러 전쟁 이후 브렌트유가 40% 내외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원유 도입 차질

이 가시화됨에 따라 정부는 격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가스의 경우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등으로 국제가격이 급등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저장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넘어섰고 연말까지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의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경보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방안을 대폭 강화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조해 풀기로 한 2천246만 배럴의 비축유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구리시

버스킹 | 퍼레이드 | 체험 부스 | 와구리 굿즈 이벤트 | 거리 전시

# 2026 장자호수 벚꽃마실

2026. 4. 11. (토) ~ 4. 18. (토) 장자대로 일원(장자호수공원)

**4.11. (토)**

걷기행사 / 벚꽃버스킹  
거리 농악 퍼레이드  
개막공연 / 부스운영

**4.12. (일)**

백파이프&폴크댄스 퍼레이드  
가곡의 밤 콘서트  
부스운영

신난당! 와~ 이쁘다!

문의 | 문화예술과 ☎ 031-550-2485